

말씀의 샘

산 믿음의 시작 <누가복음 24:36~49, 로마서 14:19>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차이 같지만, 그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를 내고 역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은 차이에 따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믿음에 발전이 없고, 우리의 믿음에 따른 역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겨자 씨와 같다고 합니다. 씨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가 하면, 씨의 겉모양은 같지만 속에서 이미 죽어버려서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씨도 있다는 것입니다. 씨의 생명력은 큰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민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역사하는 부활의 믿음, 살아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깨닫고 그 믿음을 경험하고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 믿음이 시작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의 조건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첫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눅 24: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신 것이 있습니다.

눅 24: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도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받으시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이 영이 아니고 환상도 아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에 공존하는 신령한 몸, 실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져보게도 하시고 직접 생선을 잡수셔서 생선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실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죽고 새롭게 부활할 때는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꿈처럼 몽롱하고 비물질 무형성의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면 지금의 오감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 말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거나, 실제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인정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정신과 그의 가르침의 그의 신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후일에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일제히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기다가 갑자기 일제히 변화되었다는 것이 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였기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40일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환상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바울서신에는 500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고, 승천하신걸 보았습니다. 동시에 500명이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실재적 부활인 것입니다.

눅 24: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역사적 실재적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목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면 그는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되어야 그때부터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고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만나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신앙은 확실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리얼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용할 수 있을만큼, 줄 수 있을만큼, 전할 수 있을만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기서 “주”(키리오스)라는 말은 “주인,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소유주인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되려”라는 말은 키리오스의 동사형인 키리우오는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전적인 통치권을 갖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의 시작 인사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도로스)는 그 당시 노예, 실제 매매가 되어 아무런 주권이 없는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부활하셔서 주인 되려고 하실까요? 이미 타락한 천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위에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는 선한 의지입니다. 희한하게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 쾌락, 건강과 죽음, 자기 자신... 하지만 오직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 내 죄가 씻겨진 후, 부활의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열매가 있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내 모든 삶을 다스리셔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6. 3. 27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4. 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26:23~35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예서임니까 아릅습니까?"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 삶이 있는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